

DongInRyun with ICA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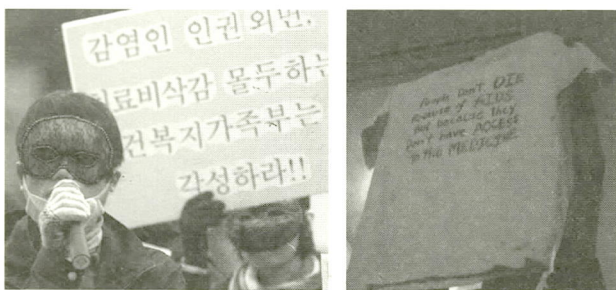
www.lgbtpride.or.kr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동성애자인권연대

왜 우리는 아이캅에 참여하는가

고민을 통한 성장



이번 아이캅은 국내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HIV/AIDS 국제규모 행사입니다. 동인련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HIV/AIDS 인권운동을 하면서 많은 국내외행사에 참여한 바 있지만, 어느 국내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안방에서 개최하는 대형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십 명의 회원들과 활동가들이 이런 행사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인련은 아이캅에 준비하기 이전부터 적지 않은 부담을 가져야 했습니다. 시작부터 우리는 왜 이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관해 스스로 의문을 가져야 했고, 단체 내부에서도 참여의 의미를 찾기 위한 고민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아이캅이 갖는 한계, 무엇보다 동인련이 직면할 수 밖에 없었던 경험과 노하우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우리는 아이캅에 참여해서 무엇을 얻어내야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준비과정 중에 겪은 우여곡절들은 동인련 내부의 HIV/AIDS 인권활동을 되짚고 활동가 개개인이 자신의 활동을 반성하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이캅은 정부와 다국적 제약회사를 비롯한 유수 기업들의 후원을 받으며 학술·전시 병행하는 대형 행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지역의 많은 분야의 활동가들이 결집하는 장입니다. 아이캅이 개최되기에 앞서 동인련은 다른 단체들과 수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LGBT는 물론 비민, 성노동자,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활동가들을 만나 에이즈와 관련된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에이즈문제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해외 활동가들과의 워크숍 등을 통해 그들의 활동 전략과 기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캅을 빌어 기존에 교류가 적었던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을 만나 에이즈 이슈를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동인련 뿐 아니라 국내의 에이즈인권활동에 있어 성장의 한걸음이 되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이캅에 동인련 회원들이 갖는 기대는 매우 큼니다. 동인련의 아이캅 참여 또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국내외 다양한 활동가들을 만나는 것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많은 동인련 활동가들이 청소년팀, 공동행동, 이주노동자, LGBT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HIV/AIDS에 직·간접적인 당사자로서 우리는 스스로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알

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에이즈 이슈에 대한 눈을 넓히고 활동가들과 함께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며 대내외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아이캅에 참여하는 우리의 경험들이 에이즈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취약계층과 PL의 인권 증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음 아·태 에이즈 대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전과 달리 깊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과 더불어, 아·태 에이즈 대회를 통해 에이즈에 취약한 그룹들(청소년들, 성노동자들, 성소수자들)과 HIV/AIDS 감염인들과의 만남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큰 규모의 국제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짜릿한 일이다. 우리는 얻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잘 찾아야 하고, 대회 이후 혁신적인 활동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회를 준비하며 만나게 된 참여단체 활동가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재성 사실 대단한 규모라고는 하지만, 에이즈 대회 하나가 한국에서 열린다고 해서 그게 지금 한국 정부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분명 8월 하순의 부산에는 세계인들이 모이고,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숨어있었던 사람들, 즉 게이, 감염인, 이주노동자, 성노동자들이 부산에서 우리의 현재를 세계인들에게 이야기한다. 그 동안의 외침은 그냥 우리 사회 안에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은, 그 외침을 들어 줄, 그리고 거기에 메아리를 보내줄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숨어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게 된다. 분명 이것은 작은 변화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가 2020년대, 2030년대 한국에는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나와 동인련 HIV/AIDS 인권팀은 무언가의 시발점에 서서 그것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뛰어난 성과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지만, 시발점은 영원히 기록에 남는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 이 순간 동인련 HIV/AIDS 인권팀의 일원으로서 ICAAP을 준비한다.

은찬 사실상 현재 이 사회에서 'SEX'라는 단어조차도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시선이 지배적인데, 어떻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Safe Sex교육이나 HIV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청소년 활동에 전전긍긍했던 나 역시도 HIV로부터 피할 수 없었다. 로수 반대 국제 행동이 있던 날,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이야기를 나누고 밤에는 문화제를 하면서, 그리고 가브리엘형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제야 내 마음속에 HIV라는 것이 확 느껴졌다. 내 생애 처음 진심으로 HIV를 접한 순간이다. ICAAP 커뮤니티위원회, 청소년 소위원장 자리를 제안 받았다. 'ICAAP'이라는 주제에 대해 동인련 사람들 몇몇이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할 때 잠깐이나마 시간을 내서 부산에 다녀올까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정말 순식간이다.

해와 '왜 감염인도 아니고, 에이즈로 공격받는 게이도 아닌데 에이즈 운동을 하지?' 나는 그녀가 한국에 찾아왔던 지난 4월, 종로의 어느 게이 바에 앉아서 그런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한번도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대답했다. "게이니까." 아마도 '성소수자니까.'라는 말의 미국식, 혹은 일본식 표현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정말 그녀가 그녀 자신을 게이라고 생각하거나. 여하튼 나는 더 이상 질문하고 싶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덧붙였다. "오케이. 통과."

이 자료는  아룬다운재단 2010년 변화의 시나리오 자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DongInRyun with ICAAP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Why should we attend the ICCAP

No pain, No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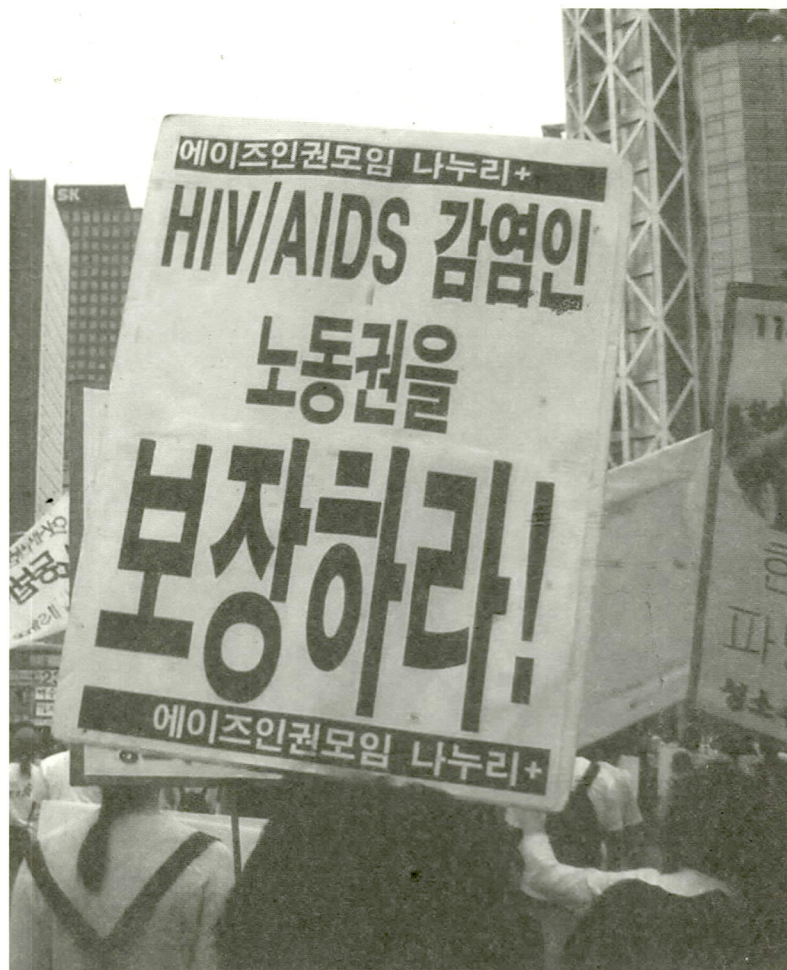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DongInRyun) has attended the various events about HIV/AIDS at home and abroad. But the ICCAP in Busan is the very first international HIV/AIDS event being held in Korea.

There are a lot of important meanings for the dozens of activists of DongInRyun who are attending the ICCAP, which makes us so demanding to prepare all the relevant works. But before that, we should find why and how we need to be together in the name of DongInRyun at the ICCAP, which also gave us to take pains.

We recognized the limitation of our experience with HIV/AIDS issues and considered together what we have to get through the ICCAP. During the preparations for the ICCAP, we had many troubles but in which each of us could reflect on our last inadequate conducts for HIV/AIDS and advance ahead for the better tomorrow.

A lot of activists who belong to the divers groups from all over the world will participate the ICCAP. We've already met some activists of th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poor, sex workers, youth and immigrant workers as well as LGBT several times. We discussed HIV/AIDS issues with them so could understand the issues from various angles. In addition to it, we could learn the foreign activists' own strategies. We are sure that this made HIV/AIDS human rights advocates to develop to a new level in Korea. Now that DongInRyun sincerely expect to meet the various activists from home and abroad at the ICCAP, many activists of DongInRyun have tried to support the preparation so hard.

We are living with HIV/AIDS or close to it and are announcing our own issues directly at the ICCAP. Maybe we could share our experiences and thoughts with the other participants, and develop new program together. Finally, we anticipate that all the experiences at the ICCAP would help HIV/AIDS human rights advocates.



JEONG YOL

Actually, it is so amazing that the large scale international congress such as the ICCAP is just held in Korea. So we should find what we need to get at the ICCAP and from which we must invent our own action model for HIV/AIDS issues. Of course, we should keep in touch with the activists whom we not only met during the preparations for the ICCAP, but also will meet at the ICCAP in Busan.

JAE 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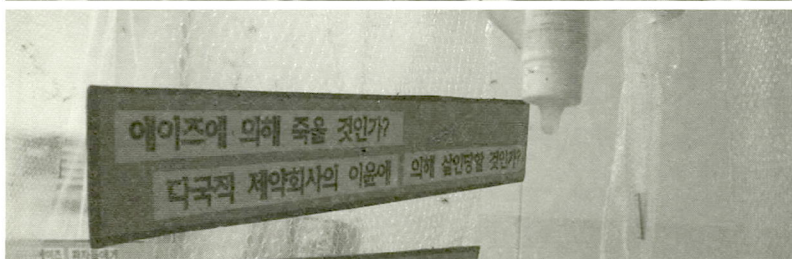
The scale of the ICCAP is pretty big but I don't think that only single HIV/AIDS congress could change the Korean government's attitudes about sexual minority and I don't even expect that. In August, th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will be together in Busan. Korean hidden people such as LGBT, PL, Sex worker and immigrant worker will talk HIV/AIDS issues and our other situations with them. Until now our voices for the human rights is just echo which doesn't return in our society. But this time there are people who listen our voices and return the echo to us sincerely. I know this is just small change, but which would give great change to Korea someday. Most of all, the HIV/AIDS human rights team of DongInRyun started brand new action. I believe that the start is more memorable rather than the good end. So I prepared the ICCAP as a member of the HIV/AIDS human rights team.

RYUEUN CHAN

Actually 'Sex' is supposed to be the word which would be harmful to youth in Korea and it is too difficult to teach HIV/AIDS. But Although I concentrated on LGBT youth action, I'm not free from the HIV/AIDS issues. Years ago, at international action day against Roche, I had deep conversation with the other activists and saw their tears, which made me close to HIV/AIDS issues. This is the first moment I met HIV/AIDS issues truly. So when I was proposed as a head of youth subcommittee of ICAAP community committee, I accepted it willingly.

HAEWA

"You are not PL and even not homosexual, then why do you do HIV/AIDS human right movements?" When she visited Korea in last April, I asked her sitting together at gay bar on Jongno. Her face looked like that she never had thought about such question ever. She answered. "Cause I'm gay." Maybe 'gay' would mean 'sexual minority' in American or Japanese way of expression. Or she really might think herself as 'gay'. Whatever, I didn't want to ask her anymore and replied in just two words. "Okay. Pass."



LGBT 커뮤니티와 PL 사이의 신뢰와 연대가 필요할 때

한국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가시화된 것은 90년대 초반입니다. 보수적인 한국의 분위기 속에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과정은 긴 시간과 힘겨운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HIV/AIDS는 커뮤니티가 수면에 등장했던 시기 이전부터 이미 주류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질병과 성적체성에 무지했던 언론은 '게이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질병'으로 에이즈를 묘사하며 동성애자들을 공격했고,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던 초기부터 에이즈의 낙인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혐오와 비난 때문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갓 스스로 성적체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시기, '게이는 에이즈의 원흉'이라는 막연한 공격에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 시절,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대처는 '에이즈는 우리의 질병이 아니다.'라고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속을 싹틔우던 시기, 커뮤니티 내부에서 즉각적으로 에이즈 이슈에 대처하며 감염인들을 지지하기에는 우리의 커뮤니티가 그만큼 결속되기 어려웠습니다.

슬프게도 사회적 비난 속에서 커뮤니티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에이즈가 게이들의 병으로 낙인찍히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시절, 감염인들은 커뮤니티에서 만난 친구들의 조력과 지지를 기대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감염인들은 주위로부터 두려움의 당사자로 낙인찍혔고, 자의든 타의든 커뮤니티에서 맺었던 친구와 애인의 관계를 끊어

야 했습니다. 커뮤니티 내부에서 성소수자 감염인들은 사회의 외부로 배제되고 어두운 곳으로 고립되고 침잠해야 했습니다.

알다시피 인터넷이 발달된 한국 사회에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국내 커뮤니티의 성장 역시 상당부분 온라인 공간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젠 감염인들도 스스로 커뮤니티를 만들어 그 안에서 친구와 파트너, 애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인 커뮤니티는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무엇보다도 LGBT 커뮤니티의 적대 때문에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소수자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이중의 속박 속에서 감염인은 생활전반의 활동들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감염인 정책은 예방과 방역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감염인으로서 목소리를 만드는 것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밝히고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때문에 많은 감염인들에게는 자립적인 경제생활역시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치료마저 거부당하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 같은 성소수자 동료들로부터 거부되는 것은 감염인의 삶을 한층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따라서 동인련 HIV/AIDS 인권팀은 성소수자 감염인들과 커뮤니티 내부의 반목을 없애는 것을 중요한 활동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결속하는 시도들은 사회적 박탈감을 함께 이겨내고 싸울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짧지 않은 반목과 불신의 역사는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에이즈와 당사자들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킬 언어들을 만들어내는 시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노력에 여러분의 응원과 도움을 구합니다.

TIME we need trust and solidarity between LGBT community and PL group

Since early 1990s, Korea visualized sexual minority communities on its surface. In conservative social atmosphere, long time and heavy burden are required to sexual minorities to build up their own communities. But HIV/AIDS revealed out toward society immediately by major medias before sexual minority communities did. Medias which ignorant for disease and sexual identity are described AIDS as 'Disease of gay', and started to attack sexual minorities as 'Host of AIDS'. Then Korean sexual minorities faced to the AIDS stigma when their own community's quickening period.

By hatred and blame, community members are cowered. AIDS stigma spread into Korean society extremely fast, there were no time for communities prepare to fight against society's attack, like 'Gays are the host of AIDS'. Unfortunately, the only thing which communities could do is the separation. 'AIDS is not our disease', main motto of communities at that time separated communities into sexual minority's own, and PL group. Our communities were not linked tight, and had lack of dealing AIDS issues and support PL group that time.

In continual social blame and suppression, communities are shrunk. The time when AIDS treated as gay's own disease and be a terror to public, PL group could not expect other friends and community's help and support. Even at that time, communities strongly want to separate from AIDS and PL, then they had stigma to PL group, and forced to them to cut all social relationships. In sexual minority communities, PL group separated further and further, and put to the invisible side.

As you know, Korea has excellent internet infrastructure, then online sexual

어떻게 하면 PL과 LGBT커뮤니티가 결속하고 연대할 수 있을까요?

메모지에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메모는 동인련버스 이벤트보드에 붙여주세요.

HOW PL and LGBT community can unite and make solidarity?
SHARE your experiences and ideas on the memo papers

ATTACH them onto the EVENT BOARD of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팀

HIV/AIDS human rights team,
So LGBT human right of Korea

minority communities grow fast. In recent, online community's growth has large portion of our whole community's growth. Many communities are opened, then public can access. Of course, PL group has their own communities, then can make friends, rebuild social relationship, and make partners and lovers. But different from open and large sexual minority's community, PL group's are closed and small. Still social atmosphere is hostile toward PL group, still sexual minority communities want to separate PL groups from their own. That make PL communities shrink and operated closed.

PL blocked most of social and life activities by double stigmas, sexual minority, and PL. Korea's AIDS policy concentrated on prevention and after treatment, not PL's human rights and quality of life. It makes PL group make their own voices harder. Of course they have difficulties to live in society in condition of come out who they are, even some hospitals banned basic treatments to PL. Above all, separation and rejection from same sexual minority colleagues make their life more painful and tragic. That lead PL to economically suffered and unable to financially independent.

And then, 'HIV/AIDS human rights team' of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located its activity's major objective to abolishing hatred between sexual minority communities and PL communities. We believe that attempts which support and unite each other's life will be the power to fight against social deprivation together. Of course, through the one generation-long hatred and distrust, there are many obstacles to recover our relationships. Then we need efforts to make programs to talk to each other, and also need attempts to change prejudices about AIDS and PL in our communities and Korean society. WE REQUIRE your cheer and support.

DongInRyun with ICAAP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동성애자인권연대를 소개합니다



성소수자 차별없는 다른 세계를 꿈꾸는 레인보우 친구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1997년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으로 출발하여 1998년 단체명을 변경한 이래로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소수자 인권단체입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인터섹슈얼 등 성적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이성애자들도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만큼 성적체성, 성별, 나이, 학력, 질병유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 모두 서로에 대한 존중과 스스로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천과 연대로 레인보우의 희망을 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실천'과 '연대'라는 주요한 활동원칙 아래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꿈꿉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듯이 성소수자들도 노동자로, 여성으로, 장애인으로, 이주노동자로, 청소년으로, HIV 감염인, AIDS 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억압은 이성애자들의 지지 속에서 모든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과 함께 행동할 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차별을 나의 문제가 아니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최근 한국사회는 동성애 혐오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혐오와 폭력이 계속된다면 성소수자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성소수자 억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성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해 반드시 장애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빈곤에 맞서 싸우기 위해 반드시 빈곤할 필요가 없듯이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성소수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Rainbow friends who dream the world without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y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is a major community based human rights organization of Korea which founded in 1997, as name of University LGBT human rights coalition. In 1998, we changed our name to current one, then lasts our actions active today. We acts for making society which regards sexual minority's human rights with not only sexual minorities themselves, but also straight people who support our objective. Also, because we composed of members who have diverse sexual orientation, make efforts to promoting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mutual respect among members.

Cherish rainbow's hope with 'action' and 'solidarity'

We dream equal society which all social minority's human rights are respected, under our activity principles of 'action' and 'solidarity'. As same as all people have their own social characteristics, sexual minorities also live diverse life as workers, women, physically challenged, migrant workers, youths, and HIV/AIDS positives. Therefore we act together not only sexual minorities but also all social minorities to abolish discriminations against sexual minorities. Of course we find solutions together, also not prevent other's discriminative experiences as these are not our own.

In recent, hatred against sexual minorities is visualizing in Korean society. The more hatred and violence grow, sexual minorities have no option but to live their life in the dark side. We think that straight people's participation is also essential for fight against oppression toward sexual minorities. There are no duty for being physically challenged to do their own social movements, also not required to be poor to do their own. It is same for sexual minority's own. We will do our best to make more free and equal society with all people who support sexual minority's human rights.

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팀

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팀은

‘동성애 = HIV/AIDS’ 라는 편견,

즉 ‘동성애자 = 무분별한 성행위로 에이즈를 전파시키는 사람들’이라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팀은 동성애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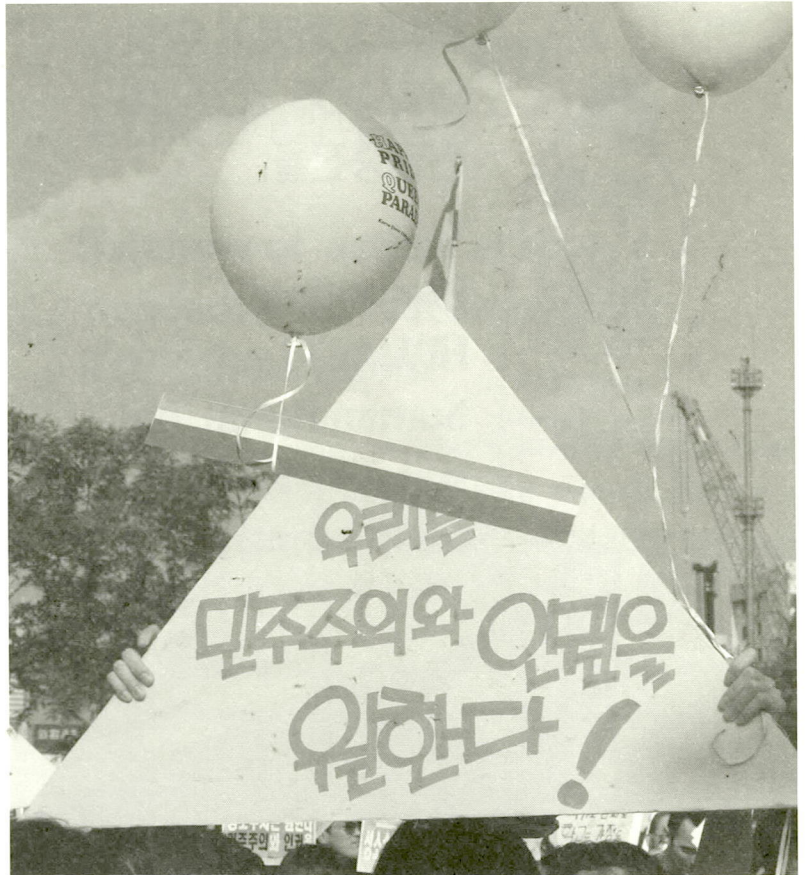
HIV/AIDS 감염인 그리고,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차별과 편견을 넘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에 희망의 씨를 뿌려주세요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HIV 감염인, AIDS 환자들이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활동을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과 이주민 성소수자, 구금시설 내의 성소수자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 정기적인 웹진(<http://lgbtpride.tistory.com>) 발행을 통해 다양한 성소수자 인권소식을 알려내고 있습니다. 아직 기획단계이지만 전문상담을 강화하고 퀴어인권연구소와 다양한 퀴어문화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활동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동성애자인권연대에 희망의 씨를 뿌려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후원 계좌

국민은행 042601-04-000151

예금주: 정율(동인련)

Account for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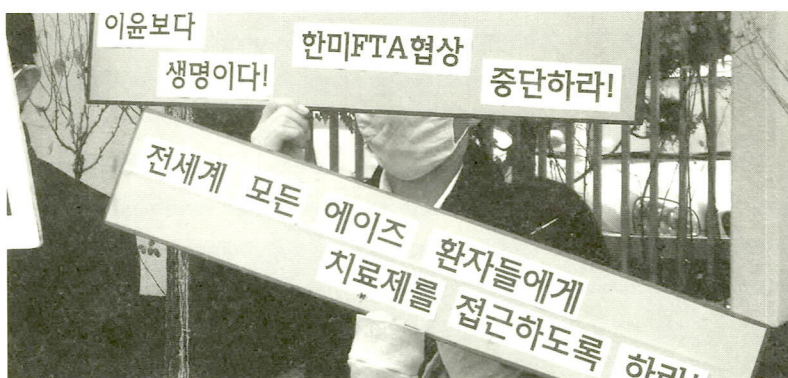
KOOKMIN BANK(KB) 042601-04-000151

(Jung Yol,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HIV/AIDS human rights team

Our organization's HIV/AIDS human rights team do activities to fight against society's prejudices like 'homosexuality=AIDS' and 'sexual minority=host of AIDS with promiscuous sex life'. And also fight against discriminations toward positives and sexual minorities. HIV/AIDS human



rights team always do their best to make world where all people live harmonious beyond discriminations and prejudices, with sexual minorities, HIV/AIDS positives, and all people who live under pressure.

Seed 'hope' to us

Now we emphasize our actions on sexual minority youths and HIV/AIDS positives to promote their social rights, and help them to free from prejudices. Also we gather sexual minority workers to make workplaces where their labor rights are ensured. And then, we are ready for issue-making transgender, sexual minority migrant, and sexual minority in detention facility's human rights problems. And we are publishing web-based monthly publications(<http://lgbtpride.tistory.com>) to inform news about sexual minority's human rights to people.

Although still on the planning process, we now prepare skill building program for advanced counselling, also prepare establishing queer human rights research institute and developing diverse queer culture contents. Please seed 'hope' to us for our continual and active activities. Your support really will be a great power to us.

DongInRyun with ICAAP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감시와 차별이 아닌 HIV/AIDS 감염인의 인권증진을

**Promoting
HIV/AIDS positive's
human rights, not
surveillance and
discrim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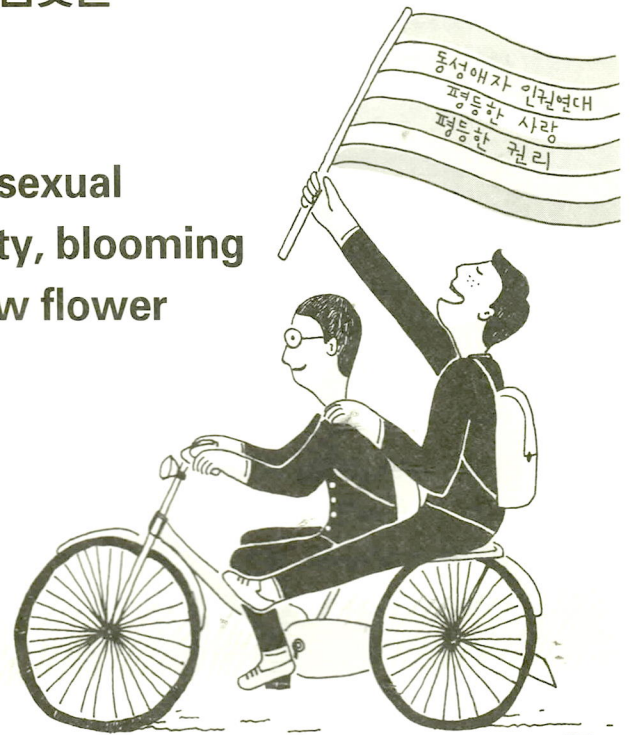
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주범이라고 비난하며 동성애자 억압과 차별을 강화하는 사회. 이 사회는 질병의 진정한 원인과 사회적 책임을 감춘채 HIV/AIDS 감염인을 차별하고 사회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HIV/AIDS에 덧붙여진 부당한 편견에 맞서고 그 희생자인 HIV/AIDS 감염인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함께 싸웁니다.

Society which blames homosexuality as 'the host of AIDS pandemic' is forces positives out from it, hiding its responsibility and real cause of HIV/AIDS. We fight for society which positive's human rights are respected, and against unreasonable prejudices which charged to positives. human rights, not surveillance and discrimination



청소년 성소수자, 무지개 봄꽃을 피우다

**Youth sexual
minority, blooming
rainbow fl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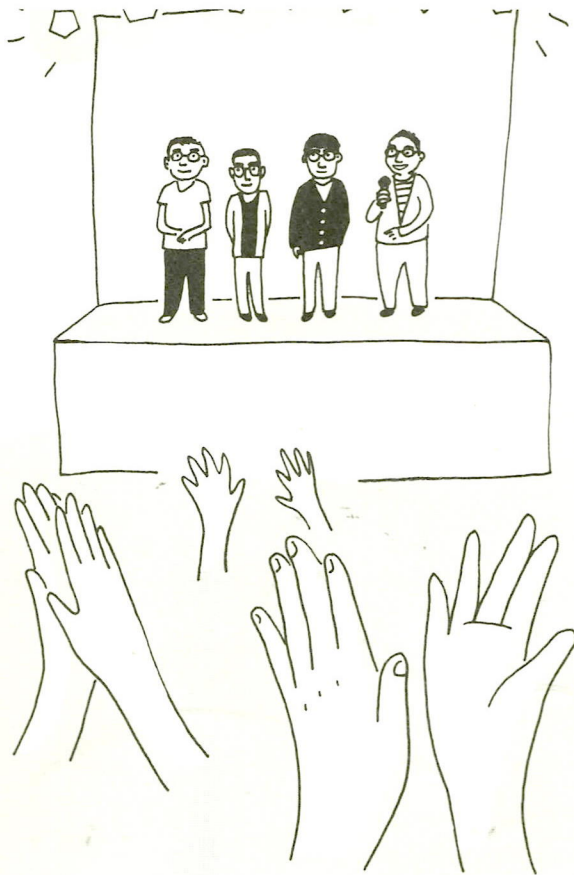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긍정과 존중을 배워야 할 청소년기,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청소년을 통제하고 경쟁으로 내모는 학교와 미숙한 존재로만 취급하는 가족, 사회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인련은 차별의 주요 근거로 이야기되는 '동성애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라는 주장에 맞서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함께 활동합니다.

Although youth have to learn about recognition and respect for diverse people, unfortunately they suffer from dual pain which one is from school which only concentrate in competition, another is from family and social structure which only treat them like immature people. We fight with youth sexual minorities against the opinion 'homosexuality is evil for youths', which is one major factor of discrimination.

혐오와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레인보우의 꿈, 그리고 희망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동성애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함께 벌이며 균형법의 동성애자 처벌조항 삭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들과 연대하여 성소수자 평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 없는 세상은 인권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We always fight against forces which foster hatred against homosexuality, and discrimination. We develop movement for establishing anti-discrimination law, also for abolishing gay-bashing military code. And doing diverse actions for sexual minority's social equality in solidarity with other organizations. We think that the world without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is a basic factor of human rights.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실천과 연대의 무지개

Rainbow of 'action' and 'solidarity' for real democracy and human rights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우리 사회 곳곳의 차별과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억압은 다른 이들이 겪는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꽃피우는 실천과 연대는 동성애자인권연대의 변함없는 가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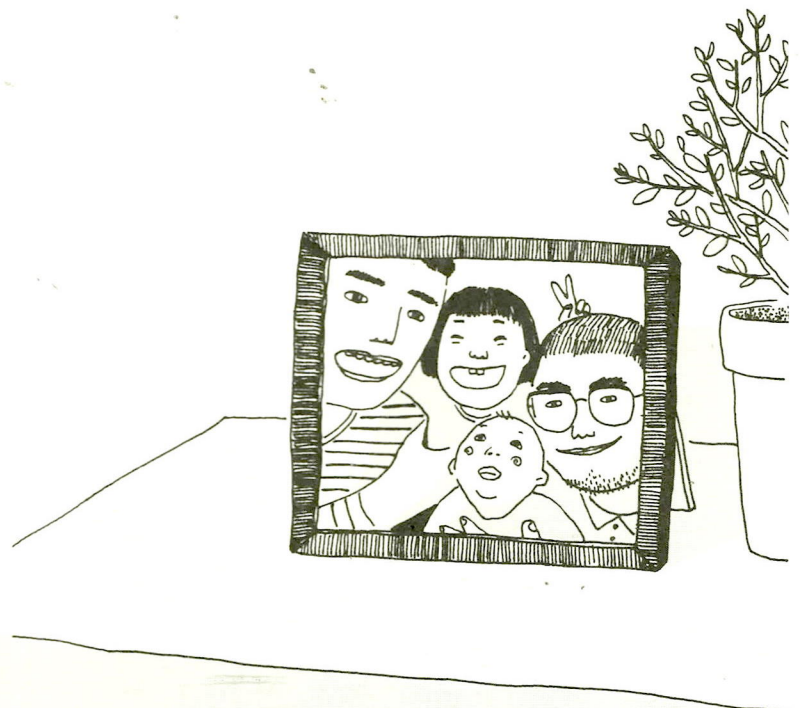
We struggle with other people who fight against social discrimination and injustice, not only for sexual minority's own. Because their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are not different from our own's. Real democracy for all, and 'action' and 'solidarity' for blooming human rights are untouchable and constant value of us.

평등한 사랑! 평등한 노동!

Equal love! Equal labor!

성소수자들도 직장을 다니며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숨김없이 당당하게 일하며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때 성소수자들은 평등한 인권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성소수자 차별 없는 평등한 노동을 위해 활동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운동, 노동조합들이 소수자 차별에 함께 연대하며 맞설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There are sexual minorities in all workplaces. We will able to say 'sexual minorities also enjoy equal human rights' at the time they can come out with pride in their workplaces, then do their work continually. We act for the labor without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in solidarity with labor unions and labor movements.



Exhibition project o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Zaps for PL

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팀 전시 PROJECT!

October 20th - November 6th

Opening : 7pm, October 20th

서울 이태원 근처 alternative space 골
Alternative space 'ggool', Itaewon-dong, Yongsan-gu, Seoul

오픈 당일 재미있는 행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참석하셔서 즐겁게 놀아 보아요!

We will have a small opening party on the opening date.
Join and enjoy with us!

동성애자 인권연대 HIV/AIDS 인권팀에서 제 1회 미술전시를 기획했습니다.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삶에 낙인을 찍힐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에서 질병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통로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동성애자인권연대 전시팀에서는 LGBT커뮤니티 내부 성적 소수자 에이즈 감염인을 가시화 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HIV/AIDS human rights team of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plans first fine arts exhibition.

Positives who stigmatized because of infected by AIDS itself have lack of rooms for communicate with Korean society.

Then our HIV/AIDS human rights team plans an exhibition to visualize sexual minority positives in LGBT community,
and to improve recognition of HIV/AIDS.

전시컨셉 Concept

전시팀은 다양한 방식으로 질병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텍스트공모전과 미술전시를 연결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먼저 전시팀은 감염인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글들을 모으고자 5월 한달동안 '2011글쓰기 공모전- 성소수자와 HIV/AIDS, 그 달관의 경지'를 진행하고,

총 10편의 글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글들을 작가에게 전달하고, 작가는 자신의 작업방식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시각화 합니다.

10월의 전시를 위해 작가는 현재 전달받은 글을 토대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때 선정된 글들은 작가의 작업 이미지들과 함께 도록에 수록되어 출간됩니다.

텍스트와 미술작업이 병행하는 과정에는 감염인과 비감염인 사이에 존재하는 시선의 불균형한 거리를 좁히고, 보다 다양한 방식의 언어로 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미술작업을 통해 질병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시각화함으로써 감염인의 삶과 HIV/AIDS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저희들의 소망이 담겨있습니다.

We designed a format which linked text contest and fine arts exhibition to express positive's own stories effectively with diverse forms.

At first, we conduct a text contest titled '2011 text contest - sexual minorities and HIV/AIDS, the philosophical stage' in May, then picked 10 texts.

After send them to the artist, she visualize text's context through her own artistic concept.

Now making artworks based on positive's stories is in progress. Picked texts and artwork's images are published in the arts image book.

Our objective of this exhibition is narrowing gap between positives and negatives, by the form of coexistence of texts and artworks which contained diverse languages. Also we hope that we will be able to make this exhibition site as the place of thinking about positive's life and HIV/AIDS.

참여작가소개 Artist information

작가 김나리 Nari Kim

2009 조소과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2010년 동성애자 인권연대 HIV/AIDS 인권팀에 합류하여 활동중입니다.

Majored in sculpture, school of fine arts, BA, 2009 Member, HIV/AIDS human rights team of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2010

동성애자인권연대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www.lgbtpride.or.kr

TEL 070-7592-9984 FAX 0505-955-9984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너, 나, 우리 '랑'

lgbtpride.tistory.com

twitter _ @lgbtaction

facebook _ facebook.com/lgbtaction

후원계좌:

국민은행 042601-04-000151

예금주: 정윤(동인연)

Account for support:

KOOKMIN BANK(KB) 042601-04-000151

Jung Yul(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